

1994년 10월 15일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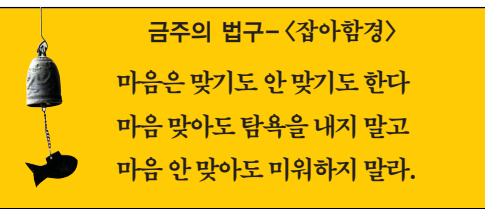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hyunbulnews.co 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14일) · 주간

제1017호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필요성 높은 신도품계 일선 사찰은 '외면'

조계종 신도 정책을 점검하다

〈표〉 신규 및 재발급 발신품계 현황

- ① 시행 5년 신도품계와 조직화
- ② 신도재교육 '불교대학'의 명암
- ③ 신도정책 변화 성공하려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신규	27,743	32,160	31,083	30,291	27,602	148,879
재발급	21,970	23,425	11,575	8,046	6,864	71,280

중단 신도 교육·조직화위해 2009년부터 품계제도 도입 발심·행도·부동·선혜 등급화

현재까지 22만명 발심 등록 증가 추세지만 활성화 '아직' 사찰 동참 미흡... 대책 시급 승급 대한 '동기 부족'도 문제

품계자만 신도회 가입 가능 초기 시행시 사찰 반발 우려

받을 수 있는 행도 품계는 지난해 8900여 명이 받았으며, 불교대학 과정 이수나 꾸준한 수행생활을 통해 인정받는 부동 품계의 경우 4500명이 품서했다. 수치를 보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계종 사찰 수를 고려하면 활성화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12시간 기본 교육만 받으면 품수되는 행도도 승급하는 발심 품계 신도는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도품계제도가 기대 이상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사찰에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교구 분사 등에서 추천 인사가 거의 올라오지 않아 신도품계 최고 품계인 '선혜'의 최초 품수가 10월 30일에서 11월 10일로 연기된 것은 이를 반증한다.

또한 기존 신도들을 대상으로 발신품계를 등록하고 축원(기도)카드를 작성을 유도하기에는 사찰 행정이 녹록치 않고, 발심→행도→부동→선혜로 진행되는 승급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것도 신도품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실제 한 사찰 주지 스님은 "소규모 사찰에서는 품계제도를 적용해서 신도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또한 품계제도에 대해 아는 스님과 신도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기대 이상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찰 관계자는 "종단에서 요구하는 신도교육 커리큘럼이 사중에 마련돼 있지 않다. 불교대학을 만들기도 어렵고 주위 불교대학에 신도를 보내 교육을 받게 하기도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품계 제도에 대해서도 '불자로서의 기본인 신심을 키우기보다 지식부터 주입한다'고 인식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2면에서 계속> 신성민·이은 기자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0월 30일 2급 승가고시 합격자 스님들에 대한 법계 품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구 스님 53명에게 대덕 법계, 비구니 스님 38명에게 혜덕 법계가 내려졌다. 중정 진제 스님은 '선·교·율·교화·행정의 모든 분들이 안으로는 참나를 밝히는 데 혼신의 정력을 다 쏟을 것'이라며 "밖으로는 간화선을 널리 선양하고 포교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후에는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비구 스님 145명이 중덕 법계, 비구니 스님 139명이 정덕 법계를 각각 품수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파손되고 흩어지고 寺址 문화재 보존 '시급'

사지 성보 24%만 원위치... 국보급 문화재도 관리 엉망

한번 손상되면 원형회복이 어려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 야외에 방치돼있는 사지 내의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사지학술조사사업 손상현황조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전체 사지 내 문화재 4976건 중 심각한 상태의 48점의 상황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48점 중 17점이 보호시설이 없는 방치 상태였으며, 16점은 보호철책 등 인위적인 접근을 막는 1차적인 보존관리에 불과했다. 훼손 정도는 구조손실, 화학적 풍화, 이끼류, 침식 등 다양했다.

이중에는 국보와 보물도 대거 포함돼 있다.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999년 장기보존을 위해 유리보호각을 세운 것이 오히려 탑의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로에 위치한 관계로 유리보호각 내에 분진이 쌓여 석탑 표면에 결합해 흑색피각 등 화학적 훼손이 일어났으며 석탑 전면

에는 구조 손실로 차별침식과 화학적 풍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유리보호각 내에 태양복사열로 인한 온도도 습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유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청이 2014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보

원각사지석탑 유리보호각이

훼손 가져와... 전면에 풍화

비지정 성보 대부분 도난 노출

존상태는 양호하다'고 된 부분이다. 국보 59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도 귀부와 이수 일부가 조류와 지의류에 의해 피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에 있는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지대석과 하대석의 연결부분은 결구가 어긋나 석재 일부가 돌출된 상태로 이격 및 침하현상이 발



분진과 유리보호각 내 온도변화로 화학적 훼손이 일어난 원각사지 10층석탑의 일부 모습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화재 훼손은 사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도난에서부터 무단 반출 등 전반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지정 및 비지정소재문화재 망실현황'을 보면 전체 사지 내 문화재 4976건 중 원위치에 있는 경우는 1218건으로 24.5%로 옮겨진 경우가 63.1%인 3142건에 달했다. 전체의 12.9%인 616점이 이미 망실됐다. 이동된

3142건 중에는 1354건이 반출됐다. 그 요인은 주변개발 등으로 주로 전 시관, 행정시설로 옮겨졌다.

문제는 이같은 사지 문화재 4976건 중 지정문화재가 1035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비지정문화재는 위의 지정문화재보다 더욱 훼손과 도난 멸실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먼저 훼손 및 보존상태에 따른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이후 상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사지 내 문화재가 원위치에 있더라도 정비·보존된 것은 23%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지와 그 문화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할 수 없기에 각 사찰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월 31일 사지 내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9면>

불교 가르침 따른 치료법 연구한다

동국대 의료원 산하 불교의학연구소 설립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다스리는 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가 동국대 내에 문을 열었다.

동국대 의료원은 10월 24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불교의학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초대 불교의학연구소장으로는 정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취임했으며 성낙진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

수, 구병수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김도연 혈액종양내과 부교수, 신성준 신장내과 부교수, 이남영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김세현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막연하게 참선과 명상 등 불교수행이 심신안정에 도움을 준다는데에서 의학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에 적합

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이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병원전법당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기금 공모에도 나선다.

정인원 소장은 "불교의학연구소는 불교의학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실용적이면서 의, 생명 과학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전법 활동에 치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관련인터뷰 4면>

“비구니 승가의 正法眼藏을 염려하며...”

현재 비구니 승가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비승가적 행태를 지켜보며 실로 깊은 우려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수행과 정진으로 진실중정(眞實中正)의 마음을 갈무리 하여도 그 본분을 지키고 행함에 부족함이 있을진대, 어찌!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끝없이 배(船)를 흔들며 각자의 달빛을 이저러지게 하고 있는지 극히 염려됩니다.

물러가고 나아감에 있어서 명분 없는 허명과 집단의 이익을 좇아서 분주히 오가며 화합을 방해하고,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침담한 지경에 이르게 하여 그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독화살의 비유처럼 소득 없는 시비를 일삼기보다 부족한 점은 대화로 상호보완하며 수행자다운 해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함허(涵虛)스님은 "구류동거일법계 자라장리살진주(九類同居一法界 紫羅帳裏撒眞珠)"라 하여, 아홉

종류의 생명들이 한 법계에 함께 사는 일이, 마치 아름다운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다른 모양과 다른 생각, 더 나아가서 다른 종류의 생태 변화까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안으로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국비구니회는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보탑입니다. 현재 비구니계 안팎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바, 전국비구니회 임원진과 열린비구니회모임(가칭) 간에 불거진 문제의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비구니 승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듭 비구니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화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라면서 전국비구니회 원로위원들의 뜻을 전합니다.

불기 2558년 10월 30일

전국비구니회 원로위원

경순스님, 명성스님, 묘관스님, 백졸스님, 범용스님, 범운스님, 범희스님, 불필스님, 재운스님, 진관스님, 현묵스님, 혜해스님, (가나다 순).